

2021년 7월 23일(금)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기도 담당

7/20(화)	7/21(수)	7/22(목)	7/23(금)	7/24(토)	7/26(월)
채이석 집사	조병훈1 집사	고운한 집사	최병호2 집사	이창진 집사	백운성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524장 다 함 께

기 도 최병호2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15:14~21 인 도 자

설 교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종을 보라!』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430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로마서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본 문	제 목
7월 20일(화)	롬 15:1-6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7월 22일(목)	롬 15:7-13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래, 기쁨과 평강
7월 23일(금)	롬 15:14-21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종을 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7월 23일(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누구보다 잘 감당할 것이라 믿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한 날의 삶을 허락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가장 잘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오늘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또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충만 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어김없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교역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혜와 은총의 빛을 비취주시고,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이처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끈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힘겨운 때일수록 더 드러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 걸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아침마다 들려오는 절망적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더 주저앉게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